아주대학교 교수회

濁流淸論

제65호 2021년 10월 21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1
-우리 학교가 살 길 - 성과형이 아니라 도전형 연구지원제로!

특집 4
-신임교원 소개

소통과 담론 8
-'위드 코로나' 좌담회

교수들의 건강칼럼 14
-여성 탈모

저서 소개란 15
- 작고 거대한 것들의 과학 (김홍표)
-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한상우)

소식 17
- 2021 월례 대의원회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우리 학교가 살 길

: 성과형이 아니라 도전형 연구지원제로!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규

오징어게임은 되는데 왜 노벨상은?

최근에 대한민국에 두 가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쁜 사실과 올해도 여전히 노벨상은 수상하지 못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왜 우리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할까? 그 답은 역설적으로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말에 있다고 생각된다. 수익이 대부분 넷플릭스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장르적 실험과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커서 오히려 좋았어요."

노벨상은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을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큰 공헌을 하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커다란 도전을 해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커다란 도전은 무엇보다도 수많은 실패를 용인해 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연구풍토는 그러한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보다는 대부분이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한 작은 연구비를 따고 이것으로 작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그렇다 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에게는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충분히 격려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입으로만 도전정신을 말할 뿐 실제로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

☞ 2페이지에 계속

닐까? 혹시 우리는 말로만 창업을 지원할 뿐 돌아서서는 작은 취업률 지표에 더 연연하고 있지는 않는가?

Sony는 안주를, 삼성은 도전을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도전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소니(Sony)를 잡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했었는데 삼성전자를 이를 해냈다. 그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소니는 안주하려 했지만 삼성은 도전을 했기 때문이었다.

거대자본이 요구되는 대중예술에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작품이 전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류가 이를 해냈고 지금도 이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에 등장하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새 역사는 이렇게 거대한 변혁의 시기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오직 도전을 하는 자가 승리의 주역이 된다.

기로에 선 아주대의 꿈은?

이제 여기에 우리 대학을 대입해 보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주대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명문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할까? 만일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가 쳐놓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도약은 오직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므로.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며 발전해 가던 당시 사회에 큰 퇴보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엄청난 인명의 손실로 인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기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유럽식 자본주의와 기계화를 만들었다.

지금 대학은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 수칙으로 교육과 연구가 주춤거리고 있다. 아주대도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대이다. 이제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도전해야 할 시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명성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질까? 국가와 재단의 재정적 후원, 지리적 여건, 사회적 평판도, 교육의 질, 연구 성과, 취업의 양과 질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 가운데 핵심은 연구 성과의 명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연구 성과를 만들까? 고만고만한 작은 논문(article)들만 양산해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결코 최고의 명문대가 될 수 없다. Science나 Nature에 실릴 만한 연구를 해야 한다. 정말로 실용성이 큰 연구,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연구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연구 분야의 초콜렛을 만들자

그런데 이제는 한 전공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하기란 정말 어렵다. 학제간, 융복합 연구만이 새롭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원주민이 건넨 카카오 열매를 먹고 맛이 없어 던져버렸다고 한다. 2세기 후 여기에 설탕을 결합하여 초콜렛으로 만든 후에 비로소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음식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카카오와 설탕을 결합시키는 일을 연구 분야에서 해야 한다.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분야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사업의 방식은 연구 계획서에 처음부터 멤버가 고정된 연구진이 있고, 이미 고정된 연구목표와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적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연구가 진척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고정된 형식의 연구계획을 가지고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아주대학의 미래 성장형 엔진으로, 이 같은 폐쇄형 연구과제 지원방식이 아니라, 개방형 연구과제 지원 방식을 제안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 연구과제로

우선 연구주제가 개방적이다. 큰 영향력이 있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초에는 몇 사람이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출발할 수 있게 한 뒤 연구 모임을 할 때마다 더욱 구체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훌륭한 연구 주제가 설정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구진이 개방적이다. 즉 처음 계획서를 작성할 때의 연구자가 끝까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주제의 필요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주제가 바뀌면 당연히 그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폐쇄형 연구과제에서는 사람에 의해 주제가 결정되지만 개방형 연구과제에서는 반대로 주제에 의해 사람이 결정되게 된다. 요컨대 참여자들을 개방해야 한다. 청중석에 있다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시사점을 던지면 그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물론 진행되는 방향과 자신의 관심과 역량이 맞지 않게 되면 그 연구진에서 나갈 것이다. 첫 모임에서 발제를 하고 점차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내외 최고의 학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분명 기존의 폐쇄형 연구과제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도전적 연구가 실행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성과가 아니라 도전을

연구비는 결과물이 아닌 과정 자체에 주어진다. 그런데 만일 실험 등이 필요하여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연구라면 도전적 연구 목표와 연구진이 웬만큼 갖추어지게 될 때 연구비를 증액시켜 준다. 요컨대 연구비도 개방형이다. 처음부터 연구 목표와 연구 방법론, 기대효과를 정하고 연구진까지 확정하여 진행하는 지금까지의 폐쇄형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이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개방형 연구 프로젝트로 전환해 보자.

개방형은 결과 중심형이 아니라 과정 중심형이다. 그리고 성과 중심형이 아니라 도전 중심형이다. 즉 성과를 무엇으로 낼 지로 연구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을 할 지로 연구계획을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가용한 연구비의 일부만이라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시작해 보자. 연구계획의 틀이 잡히면 그때 기존의 폐쇄형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도전 중심형 과제는 장기간의 연구기간을 요구하므로 단기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현행 연구업적 평가제도와도 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기간의 연구실적을 미리 충족시킨 사람에 한해 업적 평가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논의해 보자.

아주대학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고, 할 일이 있다면 도전이다.

특집

2021 2학기 신임 교원 소개 (가나다순)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김 경 남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임 교원 김경남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2016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예방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공공보건의료진흥원에서 진료조교수 및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하였고 금년 9월부터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중금속과 같은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과 건강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M2.5 장기노출이 주요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힌 연구, 임신 중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노출이 학령전기 소아의 갑상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소음, 녹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의 고도화, 이전에 평가되지 않았던 다양한 건강 지표의 측정,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과 머신러닝 기법의 적용 등이 발전의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의 캠퍼스에 공학, 임상의학, 의료 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주대학교는 선도적 환경보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활발히 협업하고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김 명 철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명철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2년간 Lecturer로 UCLA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귀국한 이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원과 연구교수로 근무한 후 올해 9월에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와 외교안보이며, 구체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강압외교를 사용한 국가와 지도자들의 핵학습 과정과 핵태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핵억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 간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비즈니스학과 김 태 훈

1) 자기 소개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시건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전공분야는 기업들이 어떻게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영정보시스템입니다. 미시건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텍사스로 건너가 베일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조교수로서 지난 3년간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열심히 해왔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수업을 통해 미국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e-비즈니스학과에 합류하여 고국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미래 인재들이 아주대학교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연구 분야

저의 연구는 경영정보시스템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테크놀러지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적 모바일 테크놀러지 사용의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결과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공익적 가치와 연결시켜 과학기술의 가치를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가지 오픈데이터 소스들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연구방법론은 계량경제학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관련 이론적 배경을 찾고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들을 다양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도시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도입과 사용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변혁의 가치와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지식관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대표 직함(학교 외 소개하고 싶은 직함)

저는 늘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을 저의 본업에서 찾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저의 연구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곧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고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의 별명이 재미를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기타 연주 외에도 야구와 테니스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들 역시 제가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해 주는 삶의 소중한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4) 부캐

기타 연주를 하면서 가끔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캐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연주 실력이나 작사/작곡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학과 이 성 실

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신임 조교수 이성실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2018년 미국 University of Houston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과정 후에는 3년간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로 재무제표 상에 조세와 관련된 공시들이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주대의 훌륭하신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주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됩니다.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아주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조 현 석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신임교원 조현석입니다. 저는 '소셜/퍼스널 미디어에서의 이벤트 이해'를 연구하였고, 2018년에서 학교에 오기전까지는 NCSOFT에서 추천시스템, 멀티모달을 활용한 문서 요약 연구들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추론하거나 활용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대에서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아주인들의 실력은 많이 듣고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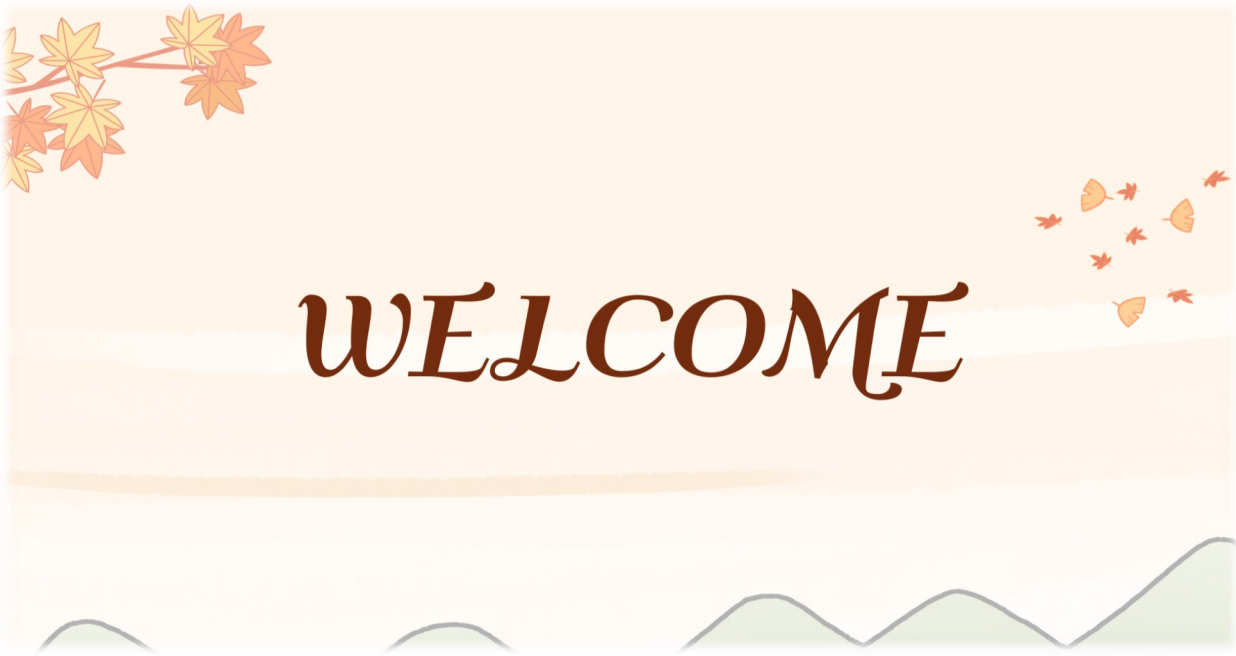
의학과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최 영 배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신임 조교수 최영배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 및 전임의를 과정을 거친 후 중앙대병원, 충북대병원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아주대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9월 전임교원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의 혈액 및 종양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은 국내에서 매년 약1000명 정도 발생하며 대부분이 급성백혈병입니다. 최근 의료에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생존율이 70-80%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재발 및 치료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성인암 환자에 비해 발생 건수가 매우 적어 정부의 지원 및 연구에서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다시금 가정, 학교, 사회로 건강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저를 비롯한 소아혈액종양 의사들의 역할이자 의무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아 환자들을 돌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아혈액종양 환자의 치료 및 치료 중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아혈액종양 질환의 국내 역학 및 이와 연관된 치료 성적, 예후인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사논문 주제는 소아 신경모세포종에서 NK 세포 치료제의 역할 및 면역세포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현재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asparaginase의 중화항체 발생 및 합병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위드 코로나 좌담회

■ **취 지 :**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위드코로나가 무엇인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학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참석자 :** 임승관(안성병원 병원장), 김대중(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박만규(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박재연(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최영화(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 **진 행 :** 최영화(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 **시 간 :** 2021년 10월 5일 (화) 17:00~19:00

■ **장 소 :** 율곡관 260호

내 용

01 — 소개
02 —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란?
03 —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04 — 마스크 착용 문제
05 — 현재 방역 대응 체계
06 — 타국의 위드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07 — 법정 제 1급 감염병 옳은가?
08 — 경기도 차원의 전략

01 — 소개

최영화 탁류청론 65호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위드(with) 코로나이고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의사로 2021년 3월부터 탁류청론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영화입니다.

임승관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교원 생활을 하다가 2018년 11월부터 공공의료 분야로 옮겼습니다. 현직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입니다. 전공 분야가 감염병 분야고, 마침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조력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직함은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운영단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홈케어'는 '재택 치료'를 의미합니다.

박만규 저는 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만규입니다. 전공은 불어불문학입니다. 사실상 오늘 주제에 특별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집 위원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탁류청론 독자들의 지식 증대에 기여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연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재연입니다. 제가 '위드 코로나'를 좌담회 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임용이 됐고, 영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관련 지식은 없지만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제안했던 주제입니다.

김대중 저는 의과대학 중에서도 내분비대사내과학,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비만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친한 정신과 의사인 지인과 같이 코로나에 관련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진료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코로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2 —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란?

박재연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종식은 없을 것 같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진짜 생존에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린 아이들, 노인, 전업 주부의 자유를 먼저 제한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좀 더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영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전부 대면으로 열어야 되겠죠?

박재연 100% 전원 등교는 아니더라도 요일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지금보다는 교육 기관에서의 대면의 기회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 관련돼서 지침이 더 명확하게 내려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대중 대학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대학생은 학교를 거의 간 적이 없고,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신입생은 온라인 환경의 교육에 너무 처음부터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면수업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리고 대학의 경우 전면등교를 할 때 백신 접종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인지, 고려해야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임승관 오피니언 리더들이 초중고 연령대의 자녀가 없다보니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비대면 교육 받는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 우리가 뉴노멀이니 비대면이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허상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내내 입시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학습 격차 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아이들이 친구 못 사귀면서, 유년·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대체 이렇게 2~3년 지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저는 너무 두렵거든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것의 요체가 다 빠져 있는데 우리는 학습 도구 및 교육 방법론을 얘기하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웨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봄부터 스웨덴은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를 다 열었던 나라예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봄이요. 그 무렵에 대학을 제외하고는 초중고는 다 열었어요. 감염이 확산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여러 가치가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 가치들의 경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안에서 우선되는 가치를 선택해 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의 목적이 대입·입시에 맞춰져있는 나라라서 아까 임 원장님 말씀대로 수능이 어떻게 잘 치러지느냐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 1년 쯤 지나서 비로소 교육의 질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이 통제 및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거죠. 게다가 교육자들이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폐쇄가 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 것, 방역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제일 최전면에 두니까 교육이 부재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교육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것보다 지나친 관료화로 본인의 안위를 우선하는 게 큰 문제로 생각이 되네요.

김대중 지금 걱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공감하지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사실상은 별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순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더 터질 거 아니에요? 물론 치명적인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 하자는 것이지만요. 제일 걱정은 사실은 초, 중,고등학교 학교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병원만큼이나 대책이 없는 곳이거든요. 모든 걸 다 선생님이 감당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확진자 발생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는데, 어느 반에서 확진자가 3명 나왔고, 저 반에서도 몇 명 나오고 하는 순간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문 닫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위드 코로나를 학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아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처럼 뒷감당은 교사들이 알아서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03 —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임승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 혹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담론을 아주 뒤늦게 시작했고, 이행 계획을 얘기하는데 아직 정의가 없어요. 담론을 만들려면 어쨌든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는 이런겁니다.'라고 개념과 정의를 얘기해 줘야 담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개념과 정의에 대한 혹은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사회를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단계적일상회복이라고 할 때 그 '일상'은 우리 머릿속에는 2019년으로 가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모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학생이 나와야지 대학이 살아나는 건데, 학생이 온라인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학교로 나온 모습이 무엇인지를, 즉 변화된 일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학생과 교수가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2학기에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접종이 85%가 완성이 되면 적어도 내년 1학기에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수업을, 대학 생활을 하자' 하는 것들을 합의하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사고 방식과 행동을 바꿔야하는데 아직 과거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숫자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박만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에 민감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선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3, 4천을 넘어버리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을 잘 비교적 해왔다는 평가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 영국은 공공의료 병상 수가 전체의 100%이고 캐나다는 99%, 프랑스는 62%인데 우리나라는 8%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가가 병상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환자가 나와도 수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절대다수가 사립 병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또 하나는 서양권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크게 중요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적인 차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가치관의 차이가 각국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상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뉴노멀)을 만들어 가야하는 거죠. 예컨대 수업·회의도 대면과 비대면을 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로의 복귀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04 — 마스크 착용 문제

최영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하는 대면 교육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는 어떻게 여겨져야 할까요?

임승관 사실은 마스크는 어떤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고, 실제로 정부 지침에서도 2미터 이내로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쓰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저도 나가서 마스크 못 벗는단 말이에요. 이미 감시와 처벌의 세계가 형성되었달까요. 유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감염자를 죄와 벌의 언어로 논하기 시작했고, 마치 사회가 거대한 판옵티콘 비슷하게 변해온 맥락이 있어요. 내가 감염되는 것 자체가 무섭다기 보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일이 두렵고 낙인찍일까 걱정하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부터 조절할 수 있는 사회여야 그 다음 범위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될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도 굉장히 잘 협조하는 것 같아요. 다소 순응적인 태도로요,

05 — 현재 방역 대응 체계

박만규 정부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조언을 주고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임승관 위원회 구조로는 그동안 생활방역위원회가 제일 높은 거버넌스였고, 올해는 지금은 단계적일상회복영역에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다른 위원회를 꾸리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는데 민간 영역이 정부 부분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민사회에 진입시키고 하는 경험과 역량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겪고 있는 혼란들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가 '항상 현재를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대응하는 팀이 없다고 생각해요. 위드 코로나 전략은 올 상반기나 올 초에 나왔어야 될 담론인 것이지, 올 11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10월에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프로세스로서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시기적인 오류죠. 특히 미래의 위험을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정말 취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난대응 거버넌스 위계 안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같은 부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더 상위 기구는 그 다음에 올 일들을 대비하는 역할 및 조사하고 그것들을 페이퍼 업하고 또 실증을 하면서 계속 미래 담론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재연 결국은 어떤 부분이 더 절실하고 다급한 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당장 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막고 나서 나중에 보니 사실 이것도 중요했었는데 하는 그런 후폭풍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돌발 변수의 시대가 왔다는 걸 다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6 — 타국의 위드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임승관 위드 코로나의 모습을 영국형, 덴마크형, 싱가포르형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영국형의 경우는 이미 많은 인구가 감염되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황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거의 모든 걸 풀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씩 감염되고 몇 백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별로 아무렇지 않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나라 정부도 시민도. 두 번째가 덴마크 형인데, 덴마크는 세 번째인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둘 다 인구가 580만 명 정도 되는 소국이에요. 작은 나라이니까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한테 쉽게 전달되고요. 백신 접종 완료도 비슷해요. 덴마크가 75%를 넘었고 싱가포르도 80% 정도 됐죠. 두 국가 모두 그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나라는 확진자가 통제되고요, 어떤 나라는 늘어나요. 그것도 아주 갑자기 매우 빠르게. 거기엔 여러 요인이 있을 거고, 역학자들이 분석해 내고 있겠지만 제 상식에서 보고 있는 큰 요인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덴마크는 싱가포르에 비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많아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보다는 통제했지만 그래도 이미 누적 확진자가 많아요. 공식적으로 6.1% 있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3~5배수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퍼센트 정도는 감염된 거예요. 반면에 싱가포르는 감염률이 1.6% 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행을 통제한 게 성공이었지만 집단 면역 측면에서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감염된 쪽이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입하기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일종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백신 80% 접종률이라도 유럽과 북미의 80% 접종률과 동아시아 80% 접종률은 다른 80%라는 거죠. 그 관점을 우리가 얘기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두 번째 차이는 진단 전략에 있어요. 유럽 나라들은 테스트 전략이 아픈 사람만 진단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 아픈 사람도 다 찾잖아요. 그러니 동일한 시점에 감염자 숫자는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백신 임상 연구의 효능 숫자를 되게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의 실제 사업 효과가 임상시험과 같을 거라고 기대해요. 아마도 유럽에서는 거의 비슷한 효능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 연구 설계가 아픈 사람을 찾는 설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안 아픈 사람도 대규모 진단검사 정책을 통해 한 명 한 명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연구 효능 94%는 만약 델타 변이가 없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올 거에요. 효능이 70~80%밖에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싱가포르와 한국의 실제 세계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연구 설계와 달라요.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요인은 이미 북유럽은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사회를 열어와서, 즉 계단 내려오는 것 같은 일이고, 동아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억제하다가 어느 순간 탁 열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게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서서히 눌렀다가 서서히 뗄 때랑 갑자기 둘 다 한꺼번에 뗄 때, 사람들의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김대중 어쨌든 국민을 설득해서 백신을 80% 맞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에 생겨날 보상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100% 면역이 없던 시절을 살아왔는데 80%가 면역이 생겼다고 그래놓고 똑같이 가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승관 김대중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싱가포르를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의 총량은 달라졌어요. 즉, 작년 겨울에 만 명과 올 겨울에 만 명은 다른 만 명인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에 따른 대응 체계와 인식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냥 똑같은 만 명이라고 이해할거에요. 그럼 그것은 실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차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거죠. 백신 접종을 통해 위중해지거나 사망할 확률히 현저히 감소한 올 해의 만 명은 작년의 만 명과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억제 전략을 썼지만, 이제 완화 전략을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고...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성공해 놓고서도, 성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김대중 자신이 너무 없어요. 자신감이. 분명히 근데 지금 2,3천 명이지만 푸는 순간 5천~만 명 갈 거거든요. 영국은 지금 3만 명대로 계속 한 달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한 달 이상.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영국과 덴마크 사람들의 생각, 또 그 정부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 토론회도 쭉 들어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지금 생활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임승관 네, 저도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 할 때마다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19가 상황 자체도 바뀠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리얼리티가 우리한테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을 과대하게 인식해요. 또 그것들을 전문가나 관료들이 교정해 주지 않고요. 어쩌면, 그래야 통제와 관리가 수월하니까요. 그래야 이동을 줄여주고 그래야 백신을 잘 맞으니까, 그래서 좀 불안과 공포라는 공기 안에서 국가 정책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더 작은 것에도 쉽게 불안해하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경험이 다 직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있으니까 저렇게 펍 가고 공연장 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부분들을 관심있게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고, 남은 어떻게 하나, 저기 왜 저러나 물어보고, 때로는 직접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비대면의 뉴노멀 세계가 그걸 방해하죠. 한국은 계속 우리 K방역 잘하고 있고, 이걸 브랜드로 해야 되고, 이걸 수출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우리 것만 보는 거죠. 약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느낌이죠. 잘한 거 맞고 열심히 한 거 맞는데 남은 어떻게 하나, 남은 어떻게 사나도 좀 들여다보면서 자꾸 교정하거나 수정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상황에 너무 깊이 몰입하고 끝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7 — 법정 제 1급 감염병 옳은가?

최영화 위드 코로나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를 앞으로 어떻게 여길 것이냐 같습니다.

임승관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부여한 위치는'법정 제1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설격리를 합니다. 경기도에 병실이 부족할 땐 확진자를 구급차에 태워서 저 멀리 타 시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대구까지 군산까지 8시간을 왕복하면서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죠. 엄청난 고비용에 엄청난 저효율이죠. 제1급 감염병은 반드시 시설 격리해야 되고 사회랑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고위험 환자니까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대체로 에볼라 바이러스병 같이 무시무시한 것들이고 우리 사회가 실제로 겪어본 건 메르스 밖에 없어요. 그것도 186건이잖아요. 그러니까 0건을 다루는 방식, 혹은 기껏해야 186건을 다루는 방식으로 35만 명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질병에 대해 우리 사회가 모르고, 대응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두는 거였지만, 질병의 전염력·치명률 등을 알아가고 또 우리한테 검사키트나 치료제, 백신이라는 무기가 생겼고, 점점 위험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그에 맞게 갑옷을 조금씩 벗어야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계속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법정 제1급 감염병'이라는 위치인거죠. 지금까지 K방역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사실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거든요.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 비인가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효율화라고 생각해요. 효과 에서 효율 위주로 전략을 바꿔야 되고, 병상 자원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안 아픈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안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즉 안 아픈 사람을 집에 있게 하면서 확진자가 한 명에서 네 명이 될 때 병상을 4개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한 병상으로 4명이 쓰는 게 되는 거죠.

08 — 경기도 차원의 전략

최영화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임승관 작년 가을까지는 '자가치료'는 불법이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예외 조항이 없었어요. 작년 가을에 법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때에도 경기도에서는 재택치료를 못했어요. 지침이 없었어요. 법은 개정됐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지침이 나온 게 12월 29일이에요. 지침이 연말에 나오니까 1월 달에 3차 유행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3월에 32명, 4월에 38명 이렇게 차츰 늘려갔어요. 지난달 9월엔-2천 명까지 늘어, 현재 누적 4300명 정도를 7개월 동안 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 전국에서 경기도만 있는 거였어요. '홈케어 운영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새로운 효율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최근 정부에서 재택치료를 활용한 효율화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이 시작됐고, 정부 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단계거든요.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꼬가 트인 것 같아요. 재택치료를 활성화할 수 없다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박재연 우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권에 거주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한꺼번에 열었을 때 컨센서스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또 그게 무서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환경이 원천 봉쇄 되니까 가짜 뉴스나 몇 개의 데이터에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학교가 문을 연다면 학생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만규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즉 암묵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관료화돼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 교육해야 하는 것을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대면으로 경험을 나눌 때 정형화된 지식에서 얻을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빨리 오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직접 대면 교육을 해야 되고, 다른 학교가 안 할수록 우리 아주대가 먼저 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의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영화 네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어떤 것인지는 아주 여러 방면은 훑어보진 못했지만, 교육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일치를 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확 불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대응체계에서 점진적으로 효율화를 이뤄가며 위드 코로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여성 탈모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최지웅

바야흐로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탈모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탈모증이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존감 상실 및 대인기피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에 앞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자가 치료 등을 하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흔히 접하게 됩니다. 국민의 20%가 탈모로 고민하는 지금, 탈모증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진단을 하며,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 2회에 걸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탈모증은 크게 비흉터성 탈모와 흉터성 탈모로 나뉩니다. 비흉터성 탈모는 경과 관찰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면 다시 발모가 되지만, 흉터성 탈모는 치료를 해도 발모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탈모증은 비흉터성 탈모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흉터성 탈모일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탈모가 있는 두피에 염증이 자주 동반되고 진물이 나며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면 흉터성 탈모가 아닌지 감별해 보아야 합니다.

비흉터성 탈모 중에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탈모증은 여성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입니다. 여성형 탈모는 중년 여성에서 주로 생기지만 이론적으로는 남성 및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는 사춘기 이후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과 탈모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생기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발을 만드는 모낭에 대한 남성 호르몬의 감수성 차이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감수성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성형 탈모증과 달리 두피에 존재하는 아로마테이즈(aromatase)나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양도 여성형 탈모증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형 탈모를 일으킵니다. 가족력은 남성형 탈모와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탈모의 양상도 남성과 다릅니다.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앞머리 이마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를 포함한 윗머리가 가늘어지며 빠지는 형태가 되고, 다행히도 남성과 같이 모발이 완전히 소실되는 대머리 양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도포제와 경구제를 사용하는데 도포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2% 혹은 3% 미녹시딜입니다. 원래 고혈압약으로 개발된 미녹시딜은 혈관확장을 비롯한 여러 효과로 발모를 유발하며, 너무 많이 바를 경우 두피 외의 피부에 잔털이 나는 다모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피의 아로마테이즈를 촉진시켜 발모를 유발하는 에스트로겐(알파트라디올) 도포제도 있습니다. 그 외 경구제는 항안드로겐제 효과를 가지는 스피로노락톤이나,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으나 도포제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차치료제로는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비흉터성 탈모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나 출산 후에 발생하는 탈모가 이에 해당하며, 특정 부위에 탈모가 생기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발이 빠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 의한 경우 단기간 음식섭취 없이 체중을 많이 뺄 때 발생하고 출산에 의한 경우 출산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빠지면서 출산 후 다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출산 후 체내의 갑작스러운 에스트로겐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 전신마취 후 수술이나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휴지기 탈모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저절로 회복되는 탈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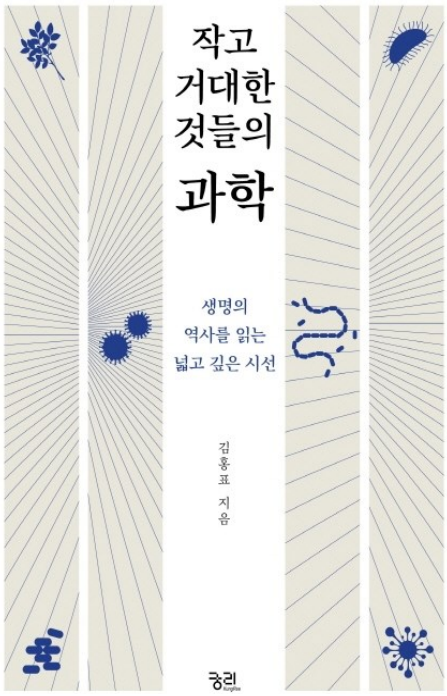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개할 비흉터성 탈모는 원형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는 남성과 여성에서 똑같은 빈도로 발생하며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 세포 주변으로 T세포가 모여들어 모낭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동전 크기의 탈모에서부터 두피를 비롯한 몸 전체의 털이 빠지는 전신원형탈모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일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 및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인 갑상선기능이상과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탈모 부위에 도포하거나 주사하고, 탈모의 범위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면역억제제를 함께 복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치료방법은 모낭 주변의 자가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접촉 면역치료법(contact immunotherapy)이 있습니다. 원형탈모는 탈모의 범위가 넓고 탈모 기간이 길수록 치료가 힘들며 재발이 잦은 특성이 있고, 최근 이러한 중증 원형 탈모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Janus kinase 억제제와 같은 저분자 화합물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탈모와 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듯이, 탈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치료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탈모가 의심된다면 피부과를 방문하신 후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밭이 좋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는 듯이, 두피는 논밭이라고 할 수 있고 모발은 농작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없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깨끗하고 청결한 두피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여성의 탈모"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소개란

작고 거대한 것들의 과학 (김홍표)

책 안 읽고 독후감 쓰기-작고 거대한 것들의 과학



젊은 날의 그는 일생에 꼭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죽겠다고 했다. 서너 장도 넘기기 힘든 박상륭의 <죽음의 한 연구>나 <칠조어론>을 밑줄을 그어가며 열 번도 넘게 읽었으나 그가 그걸 다 이해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우기다시피 자기 아들 이름에 선생의 이름자 하나를 넣음으로써 자신의 변함없는 경애의 마음을 드러냈다. 소설가나 철학자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이 허락지 않아 그는 그냥 공부의 길을 택했다. 가족과 휴가로 간 바닷가에서조차 실험 논문에 정신이 빼앗겨 물에 발 한번 담그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꿈꾸었던 소설은 아니었으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엿보고 싶은 욕망만은 여전했다. 코로나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사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마구 섞어 쓰는 걸 못 견뎌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도그마와 편향이 판치는 것도 괴로워했다. 이 책은 그의 다섯 번째 책이자 신문에 실린 칼럼을 묶은 책이다. 그는 서문에서 그의 아내가 마구잡이로 그의 글을 고치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게 때론 서운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고마워하리라는 걸 나는 안다.

가족의 책 출간을 축하하며 오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수막걸리에 빈대떡이나 부쳐주어야겠다.

누가 이런 글을 읽을까, 앵도라진 맘이 없지는 않지만 청탁을 무이지 못하고 또 몇 자 보탠다. 앞에 소개한 글은 집사람[1]이 SNS에 쓴 글이다. 항간에 편집되어 나온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매달 내가 쓴 원고를 소리 내어 읽고 빨간 줄로 죽죽 그어대며,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랬던 장본인이니 집사람 또한 한 사람의 정당한 저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국문학을 전공한 한 독자를 상대로 미토콘드리아와 광합성을 설명하고 방광이 우리 몸에 왜 있어야 하는지 토론하던 한 달 한 달이 모여 이제 얼추 오 년에 이른다. 10월 초에 쓸 신문 원고 마감도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아마 그 원고의 제목은 '지구에는 배설 기관이 없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으로 알맹이를 채울지 알 수 없다. 대신 폴 팔코프스키의 <생명의 엔진, 지구는 어떻게 살만한 곳이 되었을까?>의 몇 구절을 인용하리라 작심하고 있다. 지구의 주인이자 설계자인 세균의 행동 양식을 인간의 그것과 빗대어 쓰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글도 '생물(生物)'인지라 과연 어떤 꼴을 띨지 지금으로선 알 도리가 없다.

<작고 거대한 것들의 과학>은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모은 '글 누더기'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맘 한 켠으로는 늘 '천의무봉(天衣無縫)'을 꿈꾼다. 과학적으로나 혹은 문학적으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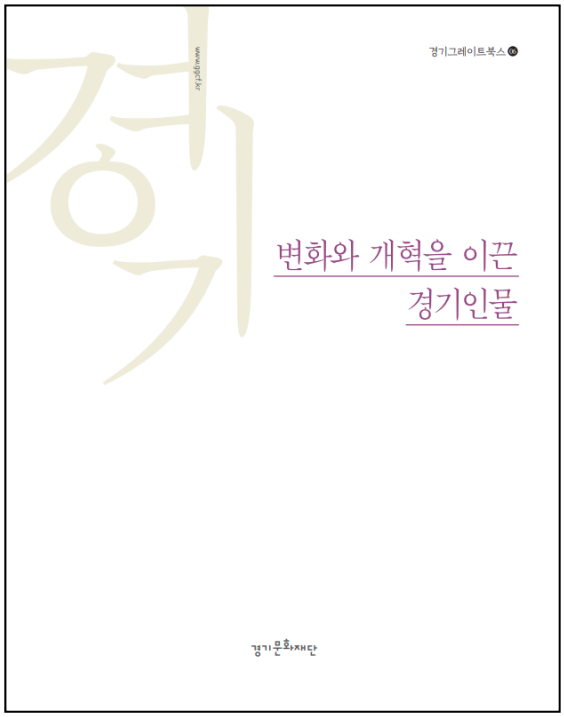
---

1)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어 선택이지만 그냥 쓴다.

2) <탁류청론>보다 칼럼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서 소개란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인물 (한상우)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인물' 소개글

- 도도하고 유유하게 흐르는 역사처럼

아주대는 현실에 뿌리박은 학문과 진리를 추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주요 건물의 이름을 역사 속 사상가와 실학자들의 호에서 빌려오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은 많다지만, 조선의 독보적인 과학자 혜강 최한기와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지식인이자 의사였던 송재 서재필의 호를 딴 건물을 가진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대가 유일할 것이다. 전통 위에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아주대의 이러한 정신과 전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 책은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세 명의 연구자가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조선시대 변화와 개혁을 이끌었던 정치인, 사상가들의 삶과 생각을 쉽게 정리한 책이다. 그 결과, 책에는 새로운 나라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부터 19세기 조선의 박물학을 선도했던 서유구까지, 명재상으로 알려진 황희와 채제공부터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름 없이 살았던 수원의 사상가 우하영까지, 다양한 시대와 자리에서 변화를 추구했던 27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우리에게 학교의 건물명으로도 익숙한 율곡 이이, 성호 이익,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도 책에 소개되었다.

'변화'라는 말이 요즘처럼 많이,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또 있었을까. 이 책의 제목에 들어간 '변화와 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날 진부할 정도로 흔한 말이 되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이 오늘날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500년이나 계속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였던 600년 전 유학자들에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를 극복해야 했던 정치가들에게, 그리고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겪으며 19세기 조선을 살아가던 사상가들에게도 변화와 개혁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기에 당대의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쓴 그들의 흔적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책에서 소개된 개혁가들은 모두 경기에 살았거나, 삶의 터전을 두었던 자들이다. 사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수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바뀌었으나, 경기의 영역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경기'란 임금이 계신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인위적 범주였기 때문이다.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큰 뜻을 품고 국왕의 부름을 기다리며 도성에 가까운 이 경기지역에서 때를 기다리곤 했다. 그렇기에 이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시대의 변화와 사회 개혁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경기 지역의 개혁가들에 주목하였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읽을 수 있다.

모두가 변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방향성이 고민될 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책을 통해 수백 년을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개혁가들의 삶과 생각을 엿보길 추천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소식

교수회 소식

교수회 제 115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 도안 115차 교수회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박만규 의장, 임석철 부의장, 박구병 총무를 비롯한 대의원 13명과 위임장을 보내온 10명을 포함, 전체 27명의 대의원 중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학과 신설 건에 대한 대응 △교수회 명예교수 자격부여 △위원회 활동 △총장 선출 절차 진행 △총장평가 설문 진행 등이 보고되었고,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교수대표 3인 △뉴스레터 발간 △<탁류청론> 편집위원회 확대 개편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대의원회에 심규철 기획처장이 직접 참여하여 첨단학과 신설 건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본부는 제출 기한이 촉박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소통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음을 전달했다. 현재 학교 본부는 2021년 5월부터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학과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3학년도 정원문제와 연계된 교육부의 첨단학과 신설 관련 공문은 올 11월쯤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의원들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본부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지만, 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정면 돌파 의지가 중요함을 말했다. 또한, 갈등 조정과정은 대학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결정이라도 교수들이 직접 내려야함을 알렸다.

2021학년도 총장평가 설문은 9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68명이 참여하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수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교수 대표 3인을 결정하였다. 각 그룹별 의논 끝에 1그룹(공대-정통대-자연대-약대) 대표에는 김상인 정보통신대학장, 2그룹(경영대-인문대-사회대-다산학부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육대학원-대학원 소속학과)대표에는 박만규 교수회 의장, 3그룹(의대-간호대)대표에는 의과대학 백은주 교수가 선정되었다. 대표 3인이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훌륭한 총장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 교수사회에 교수회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2가지 논의사항을 거쳤다. 우선 기존의 탁류청론 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더욱 풍성한 칼럼을 싣고자 한다. 두 번째는 뉴스레터(가칭)을 이메일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교수회 활동 소식을 전달하는데 참석 대의원이 전원 동의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 활동을 알리고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해주기를 바란다.

편집위원회:
김성환, 배상석, 박재연, 정태선, 최영화